

의료대란에 고위험 임신부·중증 신생아 갈 곳이 없다

전남대병원 분만실 19개·신생아 집중치료실 33개 병상 포화 상태
조선대병원도 인력난...환자들 타 지역으로 이송해도 '수용 불가'
산부인과 기피 전공의 떠나...“무너진 분만 인프라에 언제까지 버틸지”

의정감등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광주·전남 고위험군 임신부와 미숙아 등 중증 신생아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진료와 치료는 상급병원에서만 가능하지만, 광주·전남 상급병원 두 곳 모두 병상이 포화상태고 의료진도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미 2차 병원에서는 고위험 환자들을 타 지역으로 보내고 있으며 상급병원도 전원에 나서는 등 최악의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8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현재 고위험산모집중치료실(MFICU) 병상 12개와 일반 분만 병상 7개 등 총 19개 병상이 운영 중이지만 모두 포화상태다.

지난달 20일부터 22개 병상이 분만 병상으로 운영되면서 한계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환자 초과로 분만대와 진통실 병상까지 분만 병상 모두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용 병상을 모두 동원해도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워 부인과 병동의 병상까지 고위험군 임신부가 입원하고 있다.

고위험군 임신부는 임신중독, 조미숙아(24~25주) 분만 압박, 양수터짐, 자궁내 감염, 태반 출혈 등의 이유로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은 산모로 임신 전·후로 특수한 관리 및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 결국, 상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봐야 한다.

문제는 산모집중치료실뿐만 아니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까지 포화상태라는 데 있다. 전공의 부족으로 신생아를 관리할 의료진이 부족해 지자 전남대병원은 지난 7월부터 45병상이었던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33병상으로 축소해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신생아 집중치료실 33병상이 모두 꽂차 있어 고위험군 산모가 조산 등을 하는 경우 미숙아를 입원시킬 병상이 없다. 이 때문에 지역 2차 병원에서도 타 지역으로 환자를 보내는 게 드물지 않은 사례가 됐다.

현재 전남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전문의 1인만 상주하고 있어 다테아(쌍둥이 이상)를 동시처치가 불가능함은 물론 토요일 야간, 공휴일 주간

에는 32주 미만 쌍둥이 분만도 감당할 수 없다.

교육적으로 현재 산부인과에 입원 중인 조기분만 진통 쌍둥이 임신부를 타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전남대병원측이 조선대병원과 타 지역 상급병원에 환자 전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모두 '수용불가'라고 밝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인근 조선대병원도 분만실 병상이 3개뿐이다. 이는 분만담당 의료진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조선대병원의 경우 산과 교수 2명 근무체제 '여서 이들이 야간 당직을 서지 않으면 오후 5시까지만 분만이 가능하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일부 전공의가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2명의 산과 촉탁의(계약직)가 있지만 조선대병원에는 산부인과에 남은 전공의가 한 명도 없고 촉탁 의료진도 없다. 조선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도 비상 경보등이 켜진 상태다. 병상 20석 중 6석의 여유가 있지만, 의료진이 부족해 신생아를 추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고위험 임신부와 미숙아 등의 마지막 보루인 광주·상급병원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환자들은 결국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온 것이다.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산부인과를 기피하거나 지망하는 의료인력이 배출되지 않는데다 그나마 있던 전공의들이 의료과업으로 모두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지역 산과 교수들은 “특히 추석명절과 연휴에 고위험군 분만수술 환자가 발생하면 돌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혹시 위험해지면 전원할 곳이 없으니 스스로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무리하지 말라”는 당부 아닌 당부를 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광주지역 상급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광주·전남 지역 산부인과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면서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분만 현장을 지키겠지만 무너지는 분만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하늘 블랙이글스에어쇼

공군 창군 75주년을 기념해 스페이스 챌린지 in 광주가 지난 7일 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렸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에어쇼를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위 구성·당론 의결해야”

광주시·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광주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 군 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당론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군 공항 이전지 등 해당 지역의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 민주당 소속인 만큼 당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8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과 강기정 광주시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지난 6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국책사업이어서 당론이 될까”하는 솔직한 현실론도 있지만, 민주당 당론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추석 전까지 덥다

한낮 30~33도 폭염 계속

안연한 가을을 나타내는 절기인 '백로'가 지났지만, 광주·전남에서는 한낮 무더위가 추석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31~34도, 10일 낮 최고기온은 32~34도까지 치솟겠다”고 8일 예보했다.

한반도 서쪽에 티베트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잡으면서 북쪽 차가운 공기가 차단되고,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게 형성돼 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다.

유입되는 습도가 줄어들어 체감온도는 크게 오르지 않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겠다.

태양열이 지표면을 달궈 발생한 뜨거운 공기가 대기 불안정을 유발하면서 9일 광주·전남 곳곳에는 5~40mm 소나기도 내리겠다.

추석 연휴 직전인 11일과 12일 사이 중국 상해 남쪽 해상에서 유입된 수증기로 인해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2~3도 가량 높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절정기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낮 기온이 30~33도 내외로 덥겠으니 온열질환 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5월 20일~9월 6일)에 따르면 광주·전남 온열질환자수는 총 432명(광주 63명, 전남 369명)으로, 사망자는 4명(광주 1명, 전남 3명) 발생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고 제안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민주당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바람이 있다”며 “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당론으로 결정해서 다음 수순을 밟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광산을) 의원은 “당론은 어떻게 할지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지만, 군 공항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다른 특별기구라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부한 방식일 수 있으나, 당내에 군 공항 이전 특위를 꾸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축의금 5만원 내면 예약장 밥값도 안 돼 ▶6면

김도영 100타점·KIA, KS 직행 매직넘버 6 ▶18면

인생 2막 신중년 - 온라인 판매 김이수 씨 ▶22면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

